



최근 문학상을 잇따라 수상한 국립 소록도병원 공보의 장지웅(오른쪽)·김범석씨가 10일 소록도 중앙공원 구리탑 앞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센인과의 생활로 문학상 받은 소록도 공중보건의 장지웅·김범석씨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터전이다. 그러나 한때 '천형의 땅'으로 불리우며 보통사람들의 삶에서 유배됐던 가슴 시린 땅이기도 하다.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 다른 사람들과 감동을 나누고 싶었어요."(장지웅) "일기처럼 쓴 글이 책 한 권 분량은 될겁니다."(김범석)

난 것이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특히 "흔히 쉽게 말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정의를 소록도 체험을 통해 얻었다"고 덧붙였다. "소록도에 온 이유는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기 위해 온 것이지, 사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있어 사랑은 섬사람들에게 바쳐야 할 희생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날 사랑해주고 있었다. 내가 정한 사랑의 일방통행 규칙이 무너져버렸다."("두 번의 이별" 중에서)

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장씨와 김씨 모두 서울에서 나와 자라 대학까지 마친 '서울 토박이'다. 소록도에 온 것은 우연이거나 호기심이었지만, 이 곳 생활이 앞으로 펼쳐질 의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김씨는 "지금까지 받기만 한 삶을 살았던 게 사실"이라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의사가 될 수 있게 해주었"이라고 말했다.

"감동 나누고 싶어 수필 써"

안과 공보의 장지웅(32·2년차)씨는 수필 '두 번의 이별'로 이달 초 '제7회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장씨는 백내장을 심하게 앓았던 90대 할머니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느낀 감동을 글로 옮겨냈다. 장씨는 "소록도에 지원한 것은 정말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하루하루 느낀 문화적 충격은 엄청

내과 공보의 김범석(31·1년차)씨는 지난해 말 '제3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을 차지했다. 제목은 '어미가 자식을 버리는 병'. 한센병 할머니가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김씨의 갓난 아기를 두고 "아가도 문둥이를 알아보나 보다"라고 했던 말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김씨는 "단순히 의학책 지식만으로 절대 환자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소록도에서 깨달았다"며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사람'을 낳게 하는 법을 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나누는 삶 가르쳐 준 곳"

흔히 생각하는 '사무적이고 딱딱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란 적어도 소록도에선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나를 병이 아닌 편더러 고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병원 인근에 조성된 공원을 걷는 동안 이들과 마주친 환자들은 마치 아들 대하듯 다정하고 살갑게 맞았다. 이들에게 풍부했던 것은 문화적 감성이라기보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사는 한센병 환자와 역사의 질곡을 이겨온 소록도에 대한 애정이었다. 장씨는 "환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 전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자녀姓 바뀌도 생부 재산 상속

친양자 입양 姓 변경 관련 문의 빙발...법원 안내문 배포

친족 관계도 그대로 유지
광주지법 79건 변경 신청

"자녀의 성(姓)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생부(生父)와의 친족관계와 상속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 이혼 가정을 중심으로 성(姓)·본(本) 변경 및 친양자 입양 신청과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민원인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접수된 자녀의 성·본 변경 신청건수는 79건에 이르고 있다. 또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 친생자와 똑같은 관계임을 인정해 달라는 친양자 입양 신청은 9건에 이르고 있다. 문외의 친척은 매일 60~80건씩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문의 전화 대부분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 가장 많은 질문은 ▲정상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재혼한 남편의 성·본을 따를 경우 전 남편과 자녀와

의 친자관계가 끊기는지 ▲재혼 남편의 성·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재혼한 남편의 상속권자인지, 전 남편의 상속권자인지 ▲성년 자녀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친양자로 입양되면 생부와의 상속권이 소멸하는지 등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거나 정상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본 변경이 어렵다. 또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친부(생부)와의 법률상 친자·상속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성·본이 바뀌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여전히 생부가 '부(父)'로 표기되기 때문에 친족 관계에는 변함이 없고, 자녀와 전 남편과의 상속관계도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생부와의 법적 친자관계 또는 상속관계를 모두 단절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만 15세 미만 자녀에 한해서만 법원의 허가가 가능하다.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 재판확정과 동시에 생부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모두 종료돼 상속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입양 전 혈족·인척들에 대해서는 민법상 근친혼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겨울비 우산 행렬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린 11일 광주·전남지역에는 겨울 비가 내렸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거리가 우산을 쓴 시민들로 가득하다. 광주에는 이날 오후까지 17mm의 비가 내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음주운전자, 단속경찰 잇단 폭행

음주단속 중인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잇따라 폭행당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1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모(40)씨를 불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1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덕흥동 유덕로에서 자신의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추경을 거부하며 정모(39)경사와 김모(37)경장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치고 손으로 할퀴는 혐의를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10일 밤 11시경에는 광주시 서구 상무동 S교회 옆 삼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정모(55)씨가 김모(19)일경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다 경찰에 불구속 인건됐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씨 국내 송환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씨가 곧 국내로 송환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황철규 국제형사과장은 11일 "중국 국무원이 1월 7일자로 정씨에 대한 최종 송환 결정을 내렸다"며 "인수팀 구성 등 정씨를 데려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대만, 홍콩, 중국 등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해왔던 정씨가 작년 5월 초 베이징(北京)에서 체포되자 중국 정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작년 12월 12일 정씨에 대해 인도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9년 수사당국이 내사에 나서자 해외로 출국해 인터폴의 적색수배자(red notice) 명단에 오른 채 도피생활을 해왔다. /연필뉴스

"아내와 바람 핀다" 아내 직장동료 흥기 짚러

광주북부경찰은 11일 아내(50·광주시 북구 삼각동)와 바람을 핀다며 아내의 직장동료 남성에게 흥기를 휘두른 김모(4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밤 1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 있는 S이삿집센터 사무실에서 아내의 직장동료 최모(45·북구 문흥동)씨를 미리 준비한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흥기에 찔린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이를 거부할때 환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승용차 타이어 4개 통째로 도난 ○화순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타이어 4개 도난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 ○11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께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Y아파트 주차장에서 유모(30)씨 소유의 NF소나타 승용차 타이어와 휠 4개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것. ○또 같은 날 화순읍 대리 H아파트에서도 황모(50)씨 소유의 그랜저 TG 승용차 타이어 4개도 도난당한 등 이를 동안 화순에서만 시가 700만원 상당의 승용차 타이어가 도난. ○경찰은 절도범이 승용차를 들어올리는 '잭(Jack)'을 이용해 타이어를 통째로 뜯어간 것으로 보고 신원파악을 위해 아파트 CCTV를 분석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자동차 공업사와 고물상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 중. /화순=조성수기자 css@

중부지방 대설
광주·전남 비내린 추위

11일 서울·경기지역과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이어지면서 눈소고사를 실시하는 서울대와 서강대 등 주요 대학들이 시험일정을 한 시간 가량 늦춰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김포공항에서는 국내선 항공기가 3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12일까지 중부지방에 계속 눈이 오겠으며, 강원 영동지역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리고, 서울을 포함한 내륙지방에는 최고 5cm의 안팎의 눈이 더 오겠다"고 전망했다. 광주지역에는 11일 오후 5시 현재 17mm가량 비가 내렸으며, 주말인 12일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광주·전남지역엔 최고 30mm까지 비가 온 후 개겠다"고 전망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비용 허위 청구 복지시설 지정 취소
광주 남구 종교단체 부설 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 시설로 지정된 복지 시설이 서비스 제공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무자 보호자들을 채용해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 지정이 취소됐다. 광주시 남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시범 시설로 지정된 광주시 남구 한 종교 단체의 복지시설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 보호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

광주 특급호텔 건립 의혹 청렴위 대검에 수사 의뢰

광주 상무지구 특급호텔 건립 특혜 의혹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3일 전원위원회에서 광주시가 특급호텔 건립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의 의뢰를 결정, 대검청장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특급호텔 특혜 의혹 조사에 나서 지난해 7월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동일 민원을 광주지검에 이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사를 하지 않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다. /윤영기자 penfoot@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on Jan 12. Includes a table for temperature by time (morning, afternoon, evening) and a table for daily weather (13th to 18th) with high/low temperatures and weather icons.

Advertisement for 'Penfoot' (penfoot@) featuring a horse logo and text about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